

유언의 진수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래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이백오 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창 11:31-32)

위 기록에서 우르(Ur)는 현재 페르시아만(Persian Gulf)의 골 패인 언저리
인근으로 역사적으로 인류 최초의 수메르(Sumer) 문명이 탄생한 지역이고,
성경에서 에덴동산, 바벨탑 등의 배경이 된 장소이기도 합니다.

기록에 비추어, 아브라함(Abraham)의 부친이었던 데라(Terah)가 무슨
이유로 우르를 버리고 가나안(Canaan)에 이주하려고 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지만, 이하의 기록과 경외전(經外傳) 유디트(Judith)서를 참고할 때,
아마도 당시 우르의 월신숭배(月神崇拜)나 그곳의 악한 사회풍속이 신실한
데라의 일가족이 살아가기에는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됩
니다.

물론 우르를 떠나기 전에 데라와 그의 가족들 또한 다른 잡신(雜神)들을
섬겼을 수 있었을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르를 떠난 이후로 그들

가족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특단의 회심(悔心)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테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수 24:02)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수 24:14)

한편 일각의 학설로서 사래(Sarai)와 밀가(Milcah)라는 이름이 월신숭배
(月神崇拜)와 관련된 명칭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믿음
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Abraham)을 택하신 후 사래의 이름을 사라(Sarah)
라고 바꾸어 부르게 하신 것이 증거라고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테라는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教)의 효시(嚆矢)가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테라의 이주(移住)계획과 하나님께서 아브람
(Abram)에게 이르신 이주명령은 어김없이 일치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래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창 12:01, 05)

성경의 기록에서는 셈(Shem)의 족보에서 유독 데라의 족보를 따로 떼어 구분하고 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 이유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필자의 생각에 아마도 그 이유는(아브라함을 포함하여) 데라의 회심을 강조하고 그를 신실한 사람으로 취급하기 위함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데라는 우르를 떠나 서북방 하란을 거쳐 가나안에 이르는 소위 ‘비옥한 초승달 지대’(Fertile Crescent)를 지나는 약 1,600km의 여정을 끝마치지 못하고 205세를 일기로 하란(Haran)에서 숨을 거두고야 맙니다.

여기서 그가 그토록 원했던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디지 못한 이유는, 외견상 200세가 넘는 나이에 우르로부터 서북쪽 880km에 이르는 하란까지의 대장정을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지만, 그보다는 신앙적으로 그가 우르에서 온갖 잡신을 섬겼다는 사실이 보다 큰 이유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디지 못한 것과 매한가지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신 34:04)

만약 회심한 데라가 가나안에 이르지 못하고 숨을 거두기 직전에 사랑하는 아들 아브람에게 남긴 유언이 있었다면 내용이 무엇이였을까요? 우르를 떠날 때의 이유가 후세를 향한 맹모삼천지교와 마찬가지로 였다면 모르긴 해도 다음과 같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나는 비록 우르에서 여호와를 떠나 있었던 까닭에, 그 원죄로부터 내가 원했던 가나안에 이르지 못하고 여기서 죽는다면, 우리가 우르를 떠난 이유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후로도 행여 그곳 사람들의 행실을 본받지 말고, 그 행악과 궤악으로부터 떠나 너희를 향하신 여호와의 사랑에 거하라.”

“태초로부터 나와 너희를 선택하셔서 사랑하신 여호와께서 너희를 반드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이르게 하실 것이니, 그곳에서 창대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가운데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데 전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내가 이 땅위에서 못다 이룬 소원을 이 하란에 묻고 간다만, 늙은 이 육신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내 후손들을 선택하신 여호와께 더한 감사함을 드린다.”

“여호와와 무한하신 사랑에 이 늙은 아비의 기도를 더하여, 너희를 택하신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너희를 향한 희망이 솟을 수 있도록, 그 뜻과 명령을 준행하는 영광된 삶이 보전되기를 바란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무궁토록 찬송하리로다.”

실제 데라의 모습은 이와는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 살아 숨 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위에서 본 데라의 유언과 다름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남긴 하란에서의 데라의 유언, 이 땅에서 끝이끝대로 우리의 유업(遺業)이 될 수 있었으면 하고 기대해 봅니다.

고대 오리엔트(Ancient Orient, Ancient Near East)에 속한 애굽, 곧 이집트에서는 사람의 죽음을 영적사상에 결부하고 있었던 까닭에, 인위적인 미이라 [목내이(木乃伊), Mummy] 제작기술이 발달하였습니다. 이때 영적사상이라고 함은, 죽은 자의 시신을 미이라로 만들어 사후세계에서 소생시키려고

한 당시의 현세의식을 일컫습니다.

여기서 역사적 시각 하나를 되짚어 봅니다. 역사적으로 고대(Ancient)라고 함은, ‘고대 오리엔트’를 지칭합니다. 무대는 ‘사막’과 ‘강’이 됩니다. 범위는 동쪽 이란[Iran. 과거에는 페르시아(Persia. 성경에서는 ‘바사’)라 했으나, 1935년 ‘아리아인(Aryan)의 나라’라는 뜻을 가진 지금의 이란으로 국명이 바뀌었습니다]에서부터 서쪽으로 소아시아(Asia Minor, Anatolia. 지금의 ‘터키’)를 거쳐, 이집트에 이르는 반경 약 1600km의 지역이 이에 포함됩니다.

오리엔트(Orient)의 일반적 의미는 아시아의 동쪽 끝, 즉 한반도와 일본을 포함하는 극동(極東)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이에 고대(古代)라고 하는 한정사를 붙여 ‘고대 오리엔트’라고 지칭하는 경우에는 지리학적 용어가 아닌 역사학적 개념으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고대 오리엔트’를 이해함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역사상 최초의 문명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분별하여야 하고, 또한 이 같은 최초 문명이 시작된 사회의 넓이를 ‘고대 오리엔트’라는 지역적 범위와 동일시하여야 합니다.

한편 이집트의 미이라는 B.C.3000년 이전 오랜 옛날부터 행해졌고, 그 제작과정에 있어 내장적출(內臟摘出) 등 보존기술이 상당하였습니다. 미이라 형성과정은 사후에 즉시 옷을 벗기고, 미이라 전용탁자에서 시행하는데, 뇌수(腦髓)는 콧구멍으로, 내장은 왼쪽 옆구리를 절개하여 적출하게 됩니다. 다만 심장은 예외로서 제거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심장이 생명을 상징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장적출 이후에 흥부는 야자술(Toddy) 등으로 세척하였습니다. 인공 및 자연적으로 합성된 나트륨(Na, Sodium)에서 시신을 상당기간 보존하여 탈수시키고, 머리부분에는 나무의 진을 배어들게 한 천을 봉입하고, 몸체는 마포·툽밥·흙

등이 들어 있는 주머니를 채워 넣었습니다. 개구부(開口部)는 나무의 진
· 밀랍· 마포 등으로 막고 금속판 등으로 씌웠습니다. 최종단계는 목걸이
· 팔찌 등을 붙이고 20여 겹의 천으로 감고 그 위에 나무진이나 고무액을
발라 굳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천으로 감긴 얼굴 위에 마스크가 놓이게
되면 이로써 미이라는 완성되기에 이릅니다. 때로는 인공안구를 끼워
넣거나, 입술이나 볼을 붉게 물들이기도 했습니다.

창세기에는 시조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죽자, 그 아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얼굴에 입을 맞추며 통곡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애굽
사람들도 당시 요셉이 총리대신의 지위에 있었던 만큼, 야곱을 위해
애굽 관습대로 70일간 곡을 하였다고 전합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구푸려 울며 입 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사십 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칠십 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
라”(창 50:01-14)

요셉은 야곱을 장사지내기 위하여 자신의 주치의[主治醫, 수종의원(隨從醫
員)]에게 야곱의 시신에 향료와 향유를 넣어 미이로를 만들게 하였습니다.
주치의들은 요셉의 명령대로 야곱을 미이로로 만들었는데, 이를 위한

기간이 약 40일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당시 향을 시신에 넣어 미이라를 만드는 일은 전문적인 애굽인들에 의하여 종교적인 의식과 함께 이루어졌는데, 야곱의 장례법은 당시 애굽의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교적인 의식은 행치 않았고, 다만 야곱의 시신을 오래 보존하기 위해 주치의에게 이 일을 부탁하였습니다. 이후 요셉 또한 110세에 죽은 후 같은 방법으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구약성경의 기록은 정확히 애굽의 장례풍습과 일치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요셉은 애굽에서 입관되어 장사되었으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그의 유언에 따라 모세에 의하여 유골이 취하여져, 그의 자손들과 함께 애굽을 등지게 됩니다. 그가 그의 형제들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백십 세에 죽으매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창 50:24-26)

애굽을 탈출하여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시나이광야에서 혹독한 연단과 정을 치른 이스라엘은 드디어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Esau)의 땅 에돔(Edom)을

지나게 되는데 당시 에돔왕의 거절에 따라 그 땅을 가로질러 지나지 못하고 에돔땅을 우회하여 지나게 됩니다.

이윽고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목전에 둔 호르산(Hor Mt.)에 이르게 되는데, 그때 모세의 형으로서 대제사장 아론(Aaron)의 죽음을 맞보게 됩니다. 성경의 기록은 이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 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와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 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민 20:25-28)

하나님께서 이처럼 에돔땅 변경의 호르산에서 아론을 죽게 하신 것은 므리바(Meribah)에서 하나님의 명을 거역한 것이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는 모세도 다름이 없었습니다.

어눌한 모세의 언변을 대신했던 아론은 이스라엘을 이끌어 내고자 애굽에 들어갈 때부터 모세와 늘 함께 있었습니다. 비록 모세가 자신의 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묵묵히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모세의 뜻을 존중하고 순종한 신앙의 인물이었습니다.

돌이켜 보기에, 아론이 때마다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의 원성과 불평을 잠재우지 못하고 때로는 그들이 하자는 대로 내버려 둔 것에 비추어, 모세처럼 그렇게 출중한 능력을 보유한 지도자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간에 모세의 곁에서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을 다하고자 안타깝게 애썼을 것으로 보아 참다운 대제사장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때 아론은 그의 아들들(나답과 아비후)이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여 제단 앞에서 불살라지는 모습을 보면서(레 10:01-02), 단 한 마디 불평도 원망도 없이 하나님께 그리고 모세에게 묵묵히 순종했던 사실에 비추어, 그러한 그의 삶을 돌이켜 볼 때 참으로 모세의 형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무거운 짐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또한 모세가 때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통탄(痛嘆)해 마지않게 기도하고 청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론은 어떠한 생각과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간에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고 동생 모세를 지켜본 형 아론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필자 생각에는 아마도 피곤해 지쳐 있는 동생의 이부자리를 다독여 주고 시시때때로 동생 모세의 자는 모습을 보면서 이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인도해 내신 전지전능하신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당신의 종 모세가 여호와께서 주신 그 사명을 바로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강건하게 하시고, 결코 죄 많은 이스라엘로 인하여 시험들지 않도록 그 행사를 넉넉히 살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이후로 호르산에서 아론은 어떠한 유언[기도(祈禱)]을 남겼을까요? 죽음에 이르러 호르산을 오르며 사랑하는 동생 모세와 아들 엘르아살(Eleazar)의 손을 붙잡고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기도를 어떻게 남겼을까요? 기록에

서는 보이지 않고 있지만 필자는 아마도 이와 같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인도해 내신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여, 이 땅위에서 여호와와 종 아론이 마지막으로 아뢰나이다.”

“보잘 것 없는 이 늙은 몸 또한 구별하여 택하셔서, 여호와와 신실한 종
모세와 함께 여호와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에 더하여 지금까지 여호와와 거룩한 제단불을 지킬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해 주셨음에, 그 은혜를 돌아보아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황망하게도 택하신 여호와와 신실한 종 모세와 제 아들 엘르아살을 곁에
두고 지금 여기 호르산에서 죽게 하셨사오매, 그 은혜에 또 다시 감사를
드리나이다.”

“이제 이 땅에서의 마지막 화목제를 제 몸으로 여호와께 드리고자 하오매,
청컨대 부디 기쁘게 열납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원컨대, 지금까지 이 광야의 도상에서 여호와와 백성 이스라엘이 무지하여
범한 죄를 모두 제게 떠 짊어지게 하셔서, 이후로 이스라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되는 날, 여호와와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자랑스러운 선민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앞날을 굽어 살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원하나이다.”

“여호와와 종 모세여, 이 늙은 종의 과오를 부디 용서해 주시고, 외람되나마
남겨진 못난 종의 아들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주신 율법과 규례를 어김없이
지켜갈 수 있도록, 시시때때로 여호와께 간구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간 여호와와 종 신실한 모세, 그리고 한 배에서 난 형제로서 내 동생
모세와 함께 했던 지난날들이 내게는 너무도 큰 영광이자 행복이었음을
고백하나이다.”

“거룩하고도 영광스런 여호와와 존전 앞에서 다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매, 그때까지 강건 또 강건하소서.”

아론의 죽음 이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모압평지에서 느보(Nebo)산으로 이끄시게 됩니다. 그리고 길르앗(Gilead) 온 땅과 단(Dan) 나아가 사해(死海, Dead Sea)까지 한 눈에 보여주셨습니다.

이윽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보여주신 땅이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언약하신 땅이라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모세로 하여금 이 땅을 보는 것에 그치고 그리로 건너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120세를 일기로 그곳 느보산에서 하나님 곁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에 여호와와 종 모세가 여호와와 말씀대로 모압땅에서 죽어 벳브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날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백이십 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삼십 일을 애곡하니라”(신 34:05-08)

그렇게 모세는 이스라엘과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생애 전부를 털어 혼신의 힘과 정성을 다했던 모세는

그렇게 느보산 위에서 홀로 쓸쓸히 최후의 삶을 마감하여야 했습니다. 적국(敵國)의 땅에서 태어나 따뜻한 제 어미 품에 안겨보지도 못한 채, 그것도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버려져 하마터면 수장(水葬)될 운명에 빠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적(救贖史的) 계획에 따라 뜻밖에도 애굽왕족으로서 젊은 청춘을 보낸 그때 그 모세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게 아름다웠던 모세는 당시 세계 최대의 축성술(築城術)을 보유하고 있던 강성대국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부족함 없이 향유하며 피 끓는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처참했던 동족의 실상을 외면하지 못하고 토해 낸 한 때의 울분 때문에 급기야 미디안(Midian)땅으로 피하는 초라한 신세로 급락(急落)하고야마는 운명을 접합니다. 이곳에서 그는 장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장장 40년에 걸친 혹독한 연단(鍊鍛)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우연히도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장차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게 됩니다.

불같았던 성격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그의 언변은 그다지 화사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대변자로서 그의 형 아론을 붙이셔서 장장 430여년이나 그대로 두셨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드디어 권능의 두 팔을 걷어붙이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역은 수많은 군사를 대동하고 전신갑주를 걸친 채 나아가는 그야말로 보무도 당당한 광채 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고작 80세가 넘는 백발노인 둘을 앞세운 그야말로 초라하고 무모(無謀)하기 짝이 없는 보잘 것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쓰시고자 계획하고 계셨습니다(마 21:42, 막 12:10, 눅 20:17, 행 04:11, 뱀전 02:07). 그 과정은 유월(逾越)의 하나님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고, 이로써 이스라엘은 그토록 염원하던 해방의 기쁨을 만끽하게 됩니다. 그때 80이 넘는 버린 돌과 같았던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급기야 애굽왕 '바로의 신'(God to Pharaoh)이 되기에 이릅니다(출 07:01).

이윽고 하나님께서는 장엄히도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을 이끄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향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연약함과 우매함을 익히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발걸음을 시나이반도에 한동안 붙잡아 두셨는데, 이유는 불로써 죄를 다루듯 이스라엘을 하나님 사랑에 단단히 묶어 두시기 위한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그 세월 또한 모세가 거쳤던 연단의 세월과 마찬가지로 40년이었습니다.

시나이광야는 모세와 이스라엘을 연단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신학교였고, 그곳에서 가르치시고자 준비해 두셨던 교재가 바로 이스라엘의 죄와 죄 된 것의 사함에 대한 율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시나이광야를 지치는 동안 프리마에서(출 17), 마라에서(출 15), 시내산(출 32) 등에서 하나님께 씻을 수 없는 불충을 저지르게 되고 이로부터 때마다 하나님의 징벌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다름없이 이루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

면서 이윽고 대망의 구속사적 성업을 성취하시게 됩니다.

모두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단단히 올라매 놓으시기 위한, 한없는 사랑에서 비롯된 추상같은 역사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죄는 속죄제가 없이는 사함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 속죄제로서의 희생제물이 다름 아닌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죄를 모두 뒤집어쓴 속죄제물로서 하나님의 명과 부르심에 따라 느보산에서 최후를 마치게 됩니다. 그나마 멀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을 보게 된 것이 그나마 위안이었다면 위안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눈 다시 볼 수 없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등’(출 33:23)을 보여주시기까지 한 불세출의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야 했던 까닭에, 그는 항상 외로웠고 쓸쓸했으며 곤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두가 이스라엘의 미숙한 신앙과 그들의 장래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온전하심을 익히 잘 알고 있었던 까닭에,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패악한 본성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붙잡아 두기 위하여 그의 인생 전부를 바쳤습니다. 이 같은 노력은 그야말로 처절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게 처절함 속에서 보낸 세월이 더도 덜도 아닌 120년이었습니다.

홀로 쓸쓸히 느보산에 올라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아마도 모세는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여곡절이 태산 같았던 인생이었다고는

하나, 그것이 아무런 이정표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 지금의 느보산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올실과 날실에 의해 촘촘히 짜내려간 장막의 천처럼, 모두가 하나님의 치밀하신 계획에 따라 어김없이 이끌려진 인생이었음을 모세는 뒤돌아보아 바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느보산. 모세는 이곳에서 홀로이 그렇게 쓸쓸히 이스라엘과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의 형 아론이 느보산에서 최후를 마감할 당시의 기도에서처럼 이제 모세의 마음을 필자의 마음에 담아 그의 마지막 기도를 미루어 회상해 보기로 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내 하나님이지여,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사랑에 이 종의 생명을 전집물(典執物)로 삼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 공로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하나님의 도구로 택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또 다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하찮으로 쇼파르로 사용해 주셨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여 주의 낮을 뵈기 전에, 이제 이 땅위에서의 마지막 기도를 주께 고하오니, 청컨대 이 못난 종의 기도를 열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원하나이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연약하고 미약하기 그지없는 주의 백성을 어여뵈 보시사, 그들의 죄를 저들이 시시때때로 사하는 것과 같이 깨끗하게 도말하여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자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자 안타깝게 애쓸 수 있는 신실함을 허락하여 주사, 끈고한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반석이시고 피난처 되시는 내 주 하나님, 이제 택하신 주의 백성이 약속하신

땅으로 그 첫 발걸음을 내딛고자 하오매, 그들의 호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음란과 행악이 창궐한 그 땅에서 행여 곁길로 가지 않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기를 그렇게 또 간절히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언약해 주신 내 하나님이지요, 그 언약을 저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들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말씀이 그들과 후세들에게 간증이 되고 찬양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못 백성들이 그들의 참된 신앙을 본받아 그 축복의 길에서 함께 화답할 수 있도록, 그 큰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못난 죄인의 기도를 열납해 주심에 미리 감사하면서, 내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립니다.”

“내 주 하나님을 곧 뵈을 때에, 이 종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부르짖는 기도의 응답이 지금 제게 보여주신 저 너른 가나안땅에 낱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지금까지 제게 호흡을 불어 주신 내 주되신 하나님이지요, 그 사랑과 은총을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 후사들에게 남긴 노래에 덧붙여(신 33) 이 땅위에서의 마지막 호흡에 불어 큰 소리로 찬송하나이다.”

“내 주되신 하나님이며, 이곳에서나 그곳에서나 영원무궁토록 변치 않을 이 못난 종의 고백이 있기로”

“내가 내 주되신 여호와를 진정 사랑하나이다.”

이하 누구에게나 말하기 거북스럽고 이 지면에 적어 두기에 민망하기 짝이 없는 이야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의 유언에 덧대어 일점의 유익이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과 기대에 의지하여 조심스럽게

몇 자 적어보기로 합니다.

필자가 지금껏 하나님께 대한 사랑, 곧 신앙을 지킬 수 있기까지 그 뜻대가 되어 주신 분은 다름 아닌 필자의 외조모이었습니다. 외조모께서는 명색이 필자 가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유업으로 이어갈 수 있게 기초를 놓아 주셨음은 물론이거니와, 평생의 삶이 젊어서부터 청상(靑孀)으로 홀로 외롭게 지쳐갈 수밖에 없었던, 곧 누가보기에도 힘들고 지친 여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꽃처럼 이 세상에서의 사명을 다하신 분이라고 자랑스럽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필자 일가붙이 중에서도 특별히 필자는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부모와 떨어져 외조모와 단 둘이서 함께 생활했던 까닭에, 누구보다도 외조모의 각별한 사랑을 체험할 수 있었고, 또한 어려서부터 바른 신앙의 기초를 차곡차곡 다질 수 있었습니다.

기억하기에, 말도 떼지 못한 어린 나이에 외조모 무릎에 누워 자면서도 새벽기도에 그 손을 붙잡고 따라다녔으며, 그 때문인지는 몰라도 ‘나의 사랑하는 책’(234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453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458장), ‘예수께로 가면’(300장),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등의 찬송가는 당시 필자에게는 찬송가가 아닌 항상 입에서 떼지 않았던 동요가 되었습니다.

외조모께서는 필자에게 아침 저녁으로 늘 기도하는 습관을 떠나지 않게 하셨는데, 돌이켜보면 그때 외조모께서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는 속속들이 기억할 수 없지만, 오직 한 가지 항상 마무리는 “저희는 아무 공로 없사오나, 예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라고 마무리하신 것은 지금껏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외조모께서는 향년 90세에 소천(召天)하셨는데, 외조모를 여윈 때가 올 해로 정확히 20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필자는 그때 외조모께서 남겨주신 유언장을 접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물론 때마다 이 유언의 내용을 읽어 볼 때마다 어느 때고 필자는 벅찬 기쁨의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내 문상에 오신 손님들을 정성으로 대접하고, 행여 나를 위해 눈물을 보이지 않도록 너희들도 웃음으로 또한 기쁨으로 맞이 하거라.”

“내 시신은 모르는 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심서방(필자의 아버님)이 엄(嬪)할 수 있게 부탁한다. 그 자리에는 활라와 귀라(필자의 이모님과 어머니)만이 볼 수 있도록 하여라.”

“나 보다 앞서 간 내 자식 철웅이(필자의 외삼촌)의 사진을 내 곁에 두되, 내 영정과 철웅이의 사진은 지금까지 사진 중에 가장 밝은 모습이 갖든 사진으로 세워두기를 바란다.”

“남편 먼저 앞세우고, 그간 나를 위해 수고로 고생한 우리 며느리에게 사랑한다고 전한다. 그 수고가 이 땅위에서 끝나는 날, 내가 제일 앞서 너를 맞이하려 한다.”

“이제는 늙은 어미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오직 남겨진 사랑하는 우리 후세들에게 내가 있고 간 하나님 사랑의 동아줄이 끊이지 않도록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새로 태어나는 우리의 자손들은 때마다 어김없이 내 앞에 보여주고, 이 세상에서 할미의 기도했던 바를 그대로 전해주길 부탁한다. 나 또한 저 천국에서 내 자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할 것이다.”

“내가 죽은 것은 이 세상에서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일 뿐, 그 아무것도 아니니, 이 천국에서 너희들을 다시 보게 되는 날, 지난 세월을 기억하고 함께 웃어볼 날 가슴에 품고 간다.”

“지금 나는 그토록 소원하던 벽찬 소망을 이루었음에, 그 소망이 이 땅에서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너희들 또한 그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변치 않고 이어가길 바란다.”

우리는 지금까지 5가지의 유언을 접했습니다. 내일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어떤 유언을 남겨야 할까요?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 그러기에 어떠한 모습으로 저 천국에 입성하여야 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당당하게 입성하여야 할까요?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쁘고 즐겁게 입성하여야 할까요? 하나님의 품에 뛰어 달려가 기쁨의 눈물을 흘려야 할까요? 보무도 당당하게 이 땅에서의 수고를 내려놓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마치 개선장군처럼 들어가야 할까요?

필자가 묻는 것은 이 땅위에서 가슴에 둔 생각을 묻고 있습니다. 필자 같으면 천국 길에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피흘리며 가겠습니다. 너무도 부끄럽고 민망하여 감히 하나님의 얼굴은커녕 천국 문을 뒤로 하여 뒷걸음치며 들어가겠습니다. 두 손을 땅에 얹어 자복하는 마음으로 기어갈 것 같습니다. 큰 소리로 울며불며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한없는 기쁨과 영광은 다음의 일일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숨 쉬고 있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목회자들 또한 필자의 변과 같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것이 이상의 5가지 유언에 담긴 울곧은 뜻이라 생각합니다.